

제1절 ○ 석기시대의 문화와 예술

석기시대의 예술, 특히 문학은 당대의 문헌적인 기록을 지닌 기록문학이 아니라 구비문학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그런데 구비문학이란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구전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시작이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구석기와 신석기의 유적과 자취에서 문화와 예술을 추측한다.

조동일에 따르면 100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평양시 상원군 검은모루 유적과 10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함경북도 옹기군 굴포리 유적, 2만 2천 년 전의 공주 석장리 유적, 10만 년 전 이상의 연천 전곡리, 단양 수양개, 제천 점말동굴 유적에서 구석기시대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나타난다고 한다. 이 흔적을 통해서 보면, 당시의 조형예술이 동작예술이나 언어예술과 얽혀 이른바 원시종합예술을 이루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여기에서 초기 형태의 구비문학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석기시대는 7,000여 년 전이나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을 것으로 이해되고, 구석기시대에서 신석기시대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농사이다. 조형예술에서도 식물이 표현대상으로 등장하고 추상적인 수법이 나타난 것이 주목된다.

문학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이 농사를 지으면서 부르는 농업노동요이고, 추상적 사고의 상징적 표현을 특징으로 삼는 신화 같은 것이다. 노래는 농사를 짓는데 중요한 구실을 한다. 농업노동요는 신석기시대에 생겨난 것이 거의 확실하며, 같이노래·심기노래·거두기노래와 같은 종류나 교환창·선후창 같은 가창방식의 기본이 그때 마련되었을 것이다.

신화는 고대시대의 건국신화 이전 형태의 신화이다. 천지창조나 생명의 유래에 관한 신화를 신석기시대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선무대할망’이나 ‘안가닥할미’ 같은 신화가 그 예이다. 신석기시대에는 씨족 또는 부족 단위로 수호신을 정했을 것이고, 이런 수호신의 유래의 풀이는 무당의 굿을 통해 행해졌을 것이며, 이런 내용의 신화는 건국신화의 모체가 되었을 것이다. 이런 시기의 산신도 주목되는데, 선도산이나 지리산 성모(聖母)는 후대의 문헌에도 보이고, 죽령산신(竹嶺山神)은 구전에 의하면 도적을 잡은 할미라 한다. 이들 산신은 모두 여신이고 모계사회의 양상을 반영하는 듯하다.

제2절 ○ 민족 문화의 계통

구석기시대 사람들이 후대의 우리 민족과 어느 정도 연결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구석기인은 어디든지 옮겨다닐 수 있는 유목민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천관우 등의 조사에 따르면, 다음 차례로 등장한 신석기인은 우리 민족과 맥락이 이어진다고 한다. 빗살무늬의 즐문토기를 사용했다고 해서 즐문토기인이라고 부르는데, 즐문토기인이 고아시아족이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이런 견해에 따라 보면, 우리 문화의 저층에 고아시아족과 공유하는 유산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 꿈을 숭상하는 곳이나 신화, 혹은 무속이 그런 유산과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다.

중국문헌을 보면 동이족에 관한 기록이 나온다. 동이족은 중국 본토의 동북방 지역에서 만주를 거쳐 한반도에까지 살았는데, 우리 민족이 동이족 중에서 특히 두드러진 위치를 차지하고 주도적인 구실을 했음은 중국 역대의 《동이전》에 잘 나타나 있다. 서국이라는 나라를 세워 중국 주나라와 치열하게 싸운 동이족의 문화는 우리 문화와 맥락이 닿는다고 보는데, 서국의 건국서사시가 부여계 건국신화와 공통된 줄거리를 지닌다는 점에서 그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은 오랜 세월동안 만주와 한반도를 무대로 활동한 예맥족으로 지칭되기도 했다. 조선이 니 한이니 하는 집단은 예맥족으로 분화되면서 역사에 등장했다가, 그 뒤 부여·고구려·옥저·예·삼한 등으로 더 세분되었을 것이다. 이들 집단이 수많은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고조선이 여러면에서 특히 두드러진 위치를 차지해서 민족통합을 위한 일차적인 구실을 한 듯하다. 그 후 삼국 분립기를 지나 신라통일에 이르렀으며, 다시 고려의 재통일을 거쳐서 비로소 문화적이며 정치적인 단일체인 민족의 내부적인 통합을 성취했다.

제1절 ① 건국신화(소재문헌 및 자료, 신화의 중요 화소)

청동기시대에 들어서 청동제 무기의 제작과 그로 인한 싸움을 통해서 나라(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출현하는데, 이때 각기 자기 나라를 높이는 전략의 일환으로 건국신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건국신화는 원래 건국서사시였다는 가설을 가능하게 한다. 국중대회 중에 나라무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건국시조신의 내력을 서사시로 들려주었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건국서사시는 기원전 1000년경 출현한 고조선부터 시작하여 신라, 가락국, 탐라국에 이르면서까지 차례로 형성되었는데 전후시간을 합쳐서 십여 세기가 되는 동안이 건국서사시의 시대이다. 다음은 《위키백과》와 《브리태니커》, 그리고 조동일의 논의를 참조한 것이다.

01 단군신화 - 고조선의 건국신화

(1) 소재문헌

《삼국유사》

(2) 자 료

옛날, 환인의 서자 환웅이 인간 세계를 다스리기를 원하였다. 그러자 아버지 환인이 인간세계를 굽어보니 삼위태백(三危太伯)이 인간을 유익하게 하기(弘益人間)에 적합한 곳으로 여겨지므로, 아들 환웅에게 천부인 3개를 주며 환웅으로 하여금 그곳으로 가 인간세계를 다스리는 것을 허락했다. 그러자 환웅이 풍백·우사·운사를 비롯한 3,000명의 수하를 이끌고 백두산, 태백산 정상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 그곳을 신시라 칭하며 다스리니 환웅천왕이라 불렸다. 그는 곡(곡식), 명(목숨), 병(질병), 형(징벌), 선함, 악함 등 360가지 일을 맡아 인간세계를 다스렸다. 그러자 같은 동굴에 사는 곰과 호랑이 한 마리가 환웅을 찾아와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늘 간청해서 곰은 근신하여 삼칠일(21일) 만에 인간 여자로 변하였으나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 사람이 되지 못했다. 웅녀는 자신과 혼인하는 사람이 없자 신단수 아래에서 환웅에게 아이 갖기를 기원했다. 그러자 환웅은 잠시 인간으로 변해 웅녀와 혼인하였다. 그 후 웅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단군왕검이다. 왕검은 당고(당고는 요임금을 말함) 즉위 50년 후인 경인년(요임금이 즉위한 때는 무진년으로 그 50년 후는 정사년임. 따라서 기록의 오류로 보임)에 평양에 도읍하고 국호를 조선이라 했다. 훗날 도읍지를 백악산 또는 궁

홀산, 금미달이라고도 함) 아래 아사달로 옮겼다. 단군은 이후 1,500년 간 조선을 다스리고 주나라 무왕(武王, 《삼국유사》에는 고려 혜종의 이름인 武 대신 虎로 표기됨) 즉위년에 기자를 조선 왕으로 봉하고 자신은 장당경으로 옮겨갔다가 뒷날 아사달로 돌아와 산신이 되었는데 그때 단군의 나이 1,908세였다.

(3) 주요화소

환웅은 천부인 세 개(방울·칼·거울)를 가지고 풍백·우사·운사를 거느리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 내려와 신시(神市)를 열었다고 한다. 천부인은 무당임금의 권능을 상징하는 신물(神物)로 추측된다. 거느리고 온 세 사람의 이름인 풍백·우사·운사가 바람·비·구름과 관계된 것으로 보아 무당임금이 농사를 좌우하는 주술적인 힘을 행사하면서 지배권을 장악하고, 정복전쟁을 벌일 수 있는 물질적인 기반도 농업을 통해서 구축했음을 알 수 있다. 신시는 제정일치단계에서 임금으로서의 권능과 무당으로서의 주술을 동시에 발휘하는 신성한 장소이다.

02 해모수신화 - 부여의 건국신화

(1) 소재문헌

《삼국유사》

(2) 자 료

천제의 아들이 흘승골(訖升骨)이라는 곳에 내려와 도움을 정하고 나라를 북부여라 하고 스스로 해모수라 했다. 그 아들을 낳자 이름을 부루(夫婁)라 하고 동부여로 옮기게 해서 부루는 거기서 아들 금와를 얻었다. 부루가 죽은 후에 금와가 왕이 되었다. 하루는 태백산 남쪽 우발수(優渤水)라는 곳에서 유화부인을 만나 그 내력을 알아 낸 후 부인을 방에 가두니 이윽고 알을 하나 낳았다. 유화(柳花)는 수신(水神)인 하백(河伯)의 딸이고, 그에 일광(日光)이 비쳐 잉태하게 된 것이었다. 알에서 나중에 씩씩한 아이가 하나 태어났다. 특히 활을 잘 쓰므로 그 나라 말에 주몽이란 이름을 붙였다. 그는 금와왕 곁을 떠나 졸본 부여라는 곳에 가서 나라를 세웠다. 이것이 고구려이며, 주몽은 곧 시조 동명왕이다.

(3) 주요화소

해모수의 ‘해’가 오늘날의 ‘해[日]’와 같은 발음이라고도 추정한다. 해모수와 유화의 결합은 천신계와 수신계 집단의 결합으로 해석하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주몽과 주몽의 아들 유리 등은 모두 천신계열의 신화적 영웅으로 규정한다.

03 주몽신화 혹은 동명왕신화 - 고구려의 건국신화

(1) 소재문헌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 〈동명왕편〉, 《삼국사기》, 《삼국유사》(이 중 《동명왕편》이 가장 자세히 나옴) 등

(2) 자료

주몽의 아버지는 천제인 해모수였는데, 성북 청하에서 놀고 있는 하백의 딸 유화와 인연을 맺고 하늘로 돌아간다. 이 일로 하여 유화는 하백에게 쫓겨나 우발수에 있다가 금와왕에게 구출되고, 후에 해[日]에 잉태되어 1개의 알을 낳는데 이것이 주몽이다. 알은 상서롭지 못하다 하여 마구간과 깊은 산에 버려지지만 짐승들의 보호를 받고 태어나 어머니에게서 양육된다. 어려서부터 활을 잘 쏘아 주몽이라 불렸는데, 부여 왕의 태자들이 그의 능력을 시기하여 죽이려 하자 유화는 주몽에게 남쪽으로 가 뜻있는 일을 하라고 한다. 주몽은 계략-말 혀 끝에 바늘을 찔러 놓았더니 그 말은 혀가 아파서 물과 풀을 먹지 못하고 야위어 갔고, 왕이 마목을 순행하다가 여러 말이 모두 살찐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마른 말을 주몽에게 주었다-을 써서 왕실의 준마를 얻고, 세 현우(賢友)가 함께 길을 떠나 엄체에 이르렀을 때, 그를 도우러 나타난 물고기와 자라들이 만든 다리를 밟고 강을 건너 추격병을 피한다. 주몽은 유화가 보낸 보리씨를 비둘기로부터 받고, 남쪽으로 내려와 경계가 좋은 곳에 왕도를 정하고 나라이름을 고구려라 한다. 비류국 송양왕과의 언변 및 활쏘기 시합에서 크게 이겨 송양왕의 영토를 빼앗고, 성곽과 궁실을 크게 짓는다. 재위 19년에는 부여에서 온 아들 유리와 부러진 두 조각의 칼을 하나로 맞춰보고, 유리가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능력으로써 부자관계를 입증하여 그를 태자로 삼는다. 죽어 용산에 장사되었는데, 시호를 동명성왕이라 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평양 대동강가의 조천석(朝天石)에 있는 말발자국이 바로 동명왕이 타던 말의 발자국이라는 전설이 실려 있다. 동명왕이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려와 구제궁의 기린굴을 통해 이 바위를 밟고 하늘로 돌아갔기에 여기에 그 발자국이 남게 되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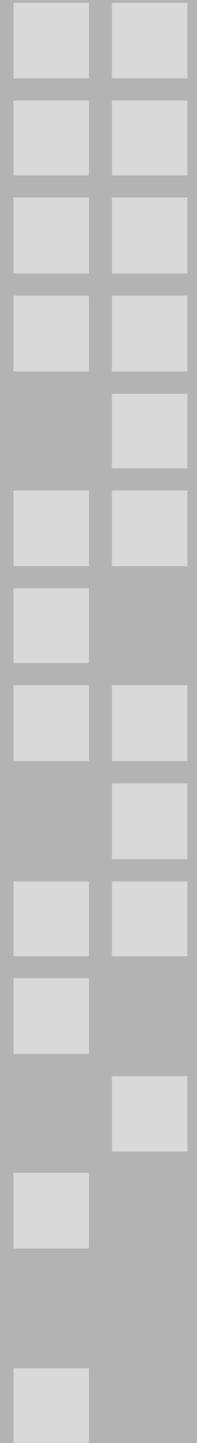
(3) 주요화소

유화가 임신한 다음 버림받았다가 다시 구출되기에 이르는 일련의 고난을 겪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모체가 죽음을 경험하는 과정의 상징적 표현일 수 있다. 이것은 유화가 농사신이고 지모신이기 때문이다. 주몽은 ① 고귀한 혈통을 지니고, ② 비정상적으로 출생해서는, ③ 범인과는 다른 탁월한 능력을 타고나, ④ 어려서 버림받아(棄兒) 죽을 고비에 이르렀다가, ⑤ 양육자 또는 조력자를 만나 죽을 고비에서 벗어나고, ⑥ 자라서 다시 위기에 부딪혔다가, ⑦ 위기를 투쟁으로 극복하고 승리자가 되었다. 이러한 일생의 7가지 유형은 이른바 영웅 일생의 구조를 이룬다.

● ● ●
Degree of Bachelor

제 3 편

삼국 · 남북국시대의 문학



제1절 한자·한문의 전래와 한문학 유산

조동일에 따르면, 한자·한문의 수용연대는 한사군 설치 이전으로 올라간다. 25자의 명문이 새겨져 있는 과(戈) 형태의 무기를 평양에서 파낸 것이 있는데, 그 명문은 중국 진시황 때인 기원전 222년 때의 것, 즉 기자조선 말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그때 이미 한자는 한반도까지 전래되었을 것이다. 이후 한자 사용은 더욱 확대되었다. 고구려는 100권이 되는 방대한 분량의 역사책 《유기》를 편찬했고, 신라는 공(工)·서(書)·산(算)을 잘 하는 부도라는 사람을 등용했다는 문헌을 통해서 보면, 중세는 한문학을 상층의 공식적인 문학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이때 우리말 문학은 기층문학으로 존재했다).

한문이 활용되면서 우리말 어순과 다른 문제점이 발생했으나, 서기체(우리말 어순에 따라 한문을 쓴 방식), 향찰(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한 방식), 구결(한문 본래의 어순이나 문법에 맞는 글에 달아서 우리말처럼 읽는 방식)을 만들어 사용했다. 중세의 특징적인 문화적 이중구조를 보여 준다(이 이중구조는 근대에 이르러 극복된다).

한문학의 유산은 실로 다양하다. 그 가운데 국사(國史)와 비문은 건국서사시로 구전하던 것과 상통하는 내용을 글로 쓴 최초의 기록문학이다. 고구려 국사는 《유기(留記)》 100권이 있었는데, 600년(영양왕 11)에 태학박사 이문진이 《신집(新集)》 5권으로 수정했다. 백제에서는 375년(근초고왕 30)에 박사 고흥이 《서기(書記)》를 편찬했고, 그 밖에 《백제기》·《백제본기》·《백제신찬》 등이 있었다. 신라에서는 545년(진흥왕 6)에 거칠부가 문사를 널리 모아 《국사》를 편찬했다.

비문은 더욱 주목된다. 고구려 장수왕이 414년에 세운 <광개토왕릉비>는 고구려의 웅대한 기상을 유감없이 나타내 준다. 우리 문학사에서 한문학이 출현해 중세문학이 시작된 증거를 제공할 뿐 아니라, 한문학이 동아시아의 공동어문학이 된 시기를 명확하게 한다. 이 밖에도 고구려비인 <중원비(中原碑)>는 고구려가 신라와 책봉관계를 가졌음을 확인시켜 준다. 진흥왕은 <창녕비>·<마운령비>·<황초령비>·<북한산비> 등 네 곳에 ‘순수비(巡狩碑)’를 세웠다. 이들 순수비는 신라가 강토를 크게 넓힌 위업을 자랑하면서 현지의 백성이 신라를 따르도록 권유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백제의 비문으로는 645년에 만들어진 <사택지적비(砂宅智積碑)>라는 것이 부여에 전한다.

또한 국내외의 정치문서도 한문학의 유산으로 볼만한 것이 있다. 수나라 장수의 허세를 조롱하는 을지문덕이 외교문서 대신 한시 <여수장우증문시>를 보냈고, 신라 진덕여왕은 당나라에 오언시형식

으로 된 <태평송>을 보냈다.

<여수장우증문시>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神策究天文(신책구천문) 그대의 신기한 계획은 하늘의 이치를 다했고
 妙算窮地理(묘산궁지리) 오묘한 계획은 땅의 이치를 다했노라.
 戰勝功既高(전승공기고) 전쟁에 이겨서 그 공은 이미 높으니
 知足願云止(지족원운지) 만족함을 알고 그만 두기를 바라노라.

<태평송> 또는 <치당태평송>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大唐開洪業 위대한 당나라가 제업(帝業)을 열었으니
 巍巍皇猷昌 드높은 황제의 경영이 창성하구나.
 止戈戎衣定 천하를 평정하여 전쟁을 종식시키고
 修文繼百王 문치(文治)를 닦아서 백왕을 계승하였네.
 統天崇兩施 천하를 통어(統御)함에는 생성(生成)을 숭상하고
 理物體含章 만물을 다스림에는 함장을 체현(體現)하도다.
 深仁諧日月 깊은 인덕(仁德)이 일월과 조화를 이루고
 撫運護時康 시운(時運)을 어루만져 순리와 화평을 다져라.
 幡旗何赫赫 나무끼는 깃발은 어이 그리도 빛이 나며
 鉦鼓何鏗鏘 징과 북소리는 어이 그리도 광황거리고.
 外夷違命者 외방의 오랑캐로서 명을 어기는 자는
 剪覆被天殃 천벌(天罰)을 받아서 멸망하고 말리라.
 淳風凝幽顯 순후한 풍속이 유계(幽界)와 현계(顯界)에 영기고
 遐邇競呈祥 멀리서 가까이서 다투어 하례를 올리는구나.
 四時和玉燭 사철의 기후가 임금의 밝은 덕에 화합하고
 七曜巡萬方 해와 달과 별들이 일만 나라들을 순행하네.
 維岳降宰輔 산악의 정기가 보필할 재상을 내리고
 維帝任忠良 임금은 어질고 성실한 인재를 쓰도다.
 五三成一德 삼황과 오제의 덕을 하나로 합쳐 이루었으니
 昭我唐家皇 우리 당나라 황제의 가문이 진정 찬란하구나.

제1절 ○ 향가의 작가와 형식

01 향가의 개념

향가란 향찰(鄉札)로 표기된 정형시가(定型詩歌)로서 신라시대부터 고려전기까지 창작되었다. 중국시가에 대한 우리나라 고유의 시가를 지칭하기도 하며, 신라가요·신라시가라고도 한다. 향가의 ‘향(鄉)’이란 ‘우리 것’ 정도의 뜻이었고 자기 비하의 어감이 들어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향찰(鄉札)

한자의 음(音)과 훈(訓)을 빌어서 우리말의 문장 전체를 그대로 적던 방법이다. 향가에 사용되어 ‘향가식 표기’라고도 한다. 대개 실사(實辭)는 훈차(訓借)하고 허사(虛辭)는 음차(音借)하였으며, 고유 명사는 음과 훈을 섞어서 사용하였다.

他密只 嫁良置古(타밀지가랑치고) 〈서동요〉

늬 그스지 얼어두고

02 향가의 작가

한 장르의 작가는 다양하지만, 그 중심이 되는 계층이 있을 수 있다. 향가가 그런 경우이다. 향가의 중심작가층은 화랑과 승려계층이다. 특히, 충담사(忠談師)·월명사(月明師) 같은 화랑 소속 낭도 승과 균여 같은 승려 등이 향가를 잘 하기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균여는 당대의 이름난 고승이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해동고승전》 같은 문헌에 이들 이름이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옷차림이나 행색으로 보아 동냥승 내지는 가무승 계층일 가능성이 짙다. 또한 월명사는 승려 이면서 낭도였으며, 아울러 주술적인 직능을 가진 것으로 보아 용천사(融天師)와 함께 주술사(呪術師)로 짐작되기도 한다.

기록에 보이는 상당수의 향가작가가 실존인물이 아니라 그 배경설화와 연관되어 이름이 붙여진 가공인물일 것이라는 설이 있다. 가령 〈안민가(安民歌)〉를 지은 충담사는 경덕왕으로 하여금 올바른 왕도를 펴서 백성들을 복되게 하여 달라는 ‘충성의 말’(충담 : 忠談)을 한 것이라는 가설이다.

03 향가의 형식

향가는 노래로 부르고 글로 쓰여졌기 때문에 두 형식으로 나뉜다.

(1) 음악적 형식

노래로 불려졌으나, 그 자세한 형식은 알 수 없다.

(2) 문학적 형식

보통 4구체·8구체·10구체로 3분한다. 이때 10구체설에 대하여 11구체설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이 3분법은 의미론적 단위에 의한 구분 방법인데, 현존 향가를 보면 <서동요>·<헌화가>·<풍요>·<도솔가>는 4구체로, <모죽지랑가>·<처용가>·<도이장가>는 8구체로, 앞에 소속되지 않은 <<삼국유사>> 소재의 향가 8수와 균여의 <보현십원가(普賢十願歌)> 11수 및 <정과정곡>은 10구체로 분류된다.

진화론적 사관에 의한 발생론

4구체·8구체·10구체 형식 중 4구체가 가장 오래된 것이고 10구체가 최종완성형이라는 가설이다. 향가는 처음 4구체의 민요형식으로 시작된 서정시로서, 인간의 감정이 점차 복잡하여짐에 따라 보다 장형화(長型化)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되어 4구체·6구체·8구체·10구체 사이를 방황하다가, 삼국통일기에 들어서자 마침내 10구체의 형식(일명 사뇌가 형식)으로 완결되었다는 견해이다.

10구체 사뇌가 형식은 작품 전체가 3장으로 구분된다. 제1장과 제2장은 각 4행으로, 제3장은 2행으로 구성된다. 제1장은 4구체와 같은 형식이고, 제2장까지 보면 8구체와 같은 형식이 된다. 제3장은 낙구·격구(隔句)·후구(後句)라고 부르며, 그 첫머리에 ‘아야(阿耶)’ 또는 그밖의 감탄사를 쓰는 것이 특징으로 써 후대의 시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된다.

제2절 ○ 향가 작품 개관(작가·연대·형식·출전·내용)

01 작품 개관

(1) 4구체(4줄로 된 향가)

민요가 두 줄, 네 줄로 된 것이 많으며 <황조가>, <구지가> 등 상고시가 또한 4줄의 형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직 민요로부터 분화되지 않은 향가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민요와는 달리 그 작자가 비교적 분명하며 개인 서정시가적 측면이 강하다.

작품으로는 <서동요>, <풍요>, <헌화가>, <도솔가>가 있다.

(2) 8구체(8줄로 된 향가)

현전 작품 2편만 가지고는 성급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여러 사정을 생각할 때 이 8구체 형식은 10구체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형식이라고 추측된다. 따라서 그 형식의 존속기간도 그리 길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구의 배수로 된 8구체로부터 향가의 창작정신은 민요적 차원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작품은 〈모죽지랑가〉, 〈처용가〉가 있다.

(3) 10구체(10줄로 된 향가)

향가의 최종 완성 형태로 통일신라시대를 전후하여 등장했다. 결사의 첫구(9번째 줄의 첫구)는 항상 ‘아으’ 등의 감탄사를 동반하는데 이 점은 ‘시조’ 종장 첫 3글자의 형식적 원형을 제공했다. 고려시대 향가 〈보현십원가〉 11수를 제외하면 총 8수가 전한다.

작품은 〈안민가〉, 〈우적가〉, 〈원가〉, 〈원왕생가〉, 〈제망매가〉, 〈찬기파랑가〉, 〈천수대비가〉, 〈해성가〉가 있다.

02 주요 작품

(1) 〈서동요(薯童謠)〉

善化公主主隱	선화 공주(善化公主)니몬	선화 공주님은
他密只嫁良置古	남 그스지 얼어 두고	남몰래 정을 통해 두고
薯童房乙	맛동바을	맛동(서동) 도련님을
夜矣卯乙抱遣去如	밤익 몰 안고 가다	밤에 몰래 안고 간다.

백제의 무왕이 지은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향가이며, 향가 중 유일하게 동요로 정착된 작품이다. 이 작품의 유래가 《삼국유사》 권2 〈무왕조(武王條)〉에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백제 제30대 무왕의 이름은 장(璋). 일찍이 어머니가 과부가 되어 서울 남쪽 연못가에 집을 짓고 살던 중 그 연못의 용(龍)과 정을 맺어 그를 낳았다. 아명(兒名)은 서동(薯童). 그 도량이 비상하고 항상 서여(마)를 케어 팔아서 생계로 삼고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아명을 그리 부른 것이다. 그는 신라 진평왕의 셋째 공주 선화(善花)가 아름답기 짝이 없다는 말을 듣고 더벅머리를 깎고 서울로 올라왔다. 그리고는 동네 아이들에게 ‘마’를 주며 자신을 따르게 했다. 드디어 노래 하나를 지어 아이들에게 부르게 했다. ‘선화공주님은 남 그스지(몰래) 얼어(嫁) 두고 서동방(님)을 밤에 몰(몰래) 안고 가다(善花公主主隱他密只嫁良置古 薯童房乙 夜矣卯乙抱遣去如)’. 이 동요는 서울에 퍼져 대궐에까지 스며들어 갔고, 백관(百官)들이 크게 간(諫)하여 공주를 멀리 귀양 보내게 되었다. 떠날 때 왕후(王后)는 그 딸에게 순금 한 말을 주었다. 공주가 귀양길에 오를 때 서동이 도중에서 나와 맞이하여 시위(侍衛)해 가겠노라 했다. 공주는 그가 어디서 온지도 모르나 우연히 믿고 기뻐하며 정을 나누었다.

그 후에야 서동이란 것을 알았다. 함께 백제로 와서 공주는 어머니가 준 금을 내놓으며 장차 생계를 꾀하려 하니, 이때 서동은 크게 웃으며 이것이 무엇이나 했다. 공주는 이것이 황금이니 가히 백 년을 넉넉히 살 수 있을 것이라 하자 서동은 말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마’를 파던 땅엔 이런 것이 흙과 같이 쌓였다 하니 공주는 크게 놀라며 그것은 천하의 지보(至寶)이니 그 보물을 부모님이 계신 궁궐에 보내는 것이 어떠하냐고 했다. 서동이 좋다 하며 금덩이를 모아 구릉(丘陵)과 같이 쌓아 놓고 용화산(龍華山) 사자사(師子寺)의 지명법사(知命法師)에게 가 금 수송의 방책을 물었다. 법사는 내 신력(神力)으로 옮기리라 하니, 공주가 편지와 함께 금덩이를 절간 앞에 갖다 놓으니, 법사가 신력으로 하룻밤 사이에 신라 궁중으로 옮겨 놓았다. 신라의 진평왕은 그 신이(神異)함에 더욱 존경하고, 항상 편지를 보내어 문안을 물었다. 서동은 이런 일로써 민심을 얻고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2) <헌화가>

紫布岩乎邊希	지뵤 바회 ㄱ새	자춘빛 바위 가에
執音乎手母牛放教遣	자복은손 암소 노히시고,	잡고 있는 암소 놓게 하시고,
吾盼不喩慚盼伊賜等	나를 안디 붓그리샤든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신다면
花盼折叱可獻乎理音如	고즐 것거 바도립다.	꽃을 꺾어 바치오리다.

신라 성덕왕(702~737)때에 이름을 알 수 없는 노인이 수로부인(水路夫人)에게 꽃을 꺾어 바치며 부른 4구체 향가이다. 《삼국유사》 권2 <수로부인조>에 가사 전문과 배경설화가 실려 전한다. 수로부인의 남편 순정공(純貞公)이 강릉태수가 되어 부임해가던 중 바닷가에서 점심을 먹게 되었다. 깎아지른 벼랑이 병풍처럼 바다를 에워싸고 있었는데 높이가 1,000장(丈)이나 되는 벼랑 위에 철쭉꽃이 활짝 피어 있는 것을 보고 수로부인이 “저 꽃을 꺾어 바칠 사람이 없느냐.”라고 하며 꽃을 원했다. 그러나 종자(從者)들은 모두 사람이 닿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며 나서지 않았다. 이때 소를 끌고 가던 한 노옹(老翁)이 부인이 꽃을 바란다는 말을 듣고 이 노래를 지어 부르며 꽃을 꺾어 바쳤다.

(3) <도솔가>

今日此矣散花唱良	오늘 이에 散花(산화) 불러	오늘 이에 산화가를 불러,
巴寶白乎隱花良汝隱	색솔븐 고자 너는	뿌린 꽃이여, 너는
直等隱心音矣命叱使以惡只	고든 므스미 命(명)스 브리읍디	곧은 마음의 명령을 부린 것이니
彌勒座主陪立羅良	彌勒座主(미륵좌주) 피서라.	미륵좌주를 모시도록 하라.

도솔은 미륵을 지칭한 말로서, 미륵불을 모시는 단을 모아 놓고 이 노래를 불러 미륵불을 맞이하려고 한 것이다. 떨기 꽃을 통하여 미륵불을 모시겠다는 뜻이므로, 전형적인 찬불가(讚佛歌)이다. 《삼국유사》 권5 <월명사 도솔가조>에 실려 있다. 경덕왕 19년 병자 4월 초하루에 두 개의 해가 나타나서 10일이 되도록 없어지지 않았다. 일관이 아뢰기를 “인연이 있는 스님을 청하여 산화공덕을 지으면 재앙을 물리치리이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제단을 조원선에 깨끗이 꾸며 놓고 임금이 창양루

에 나가 앉아서 인연이 있는 스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마침 월명사가 언덕 남쪽 길로 가고 있었다. 임금이 그를 부르라하여 제단을 열고 의식을 시작하게 하니, 월명사가 아뢰기를 “저는 다만 화랑의 무리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오직 향가만 알 뿐이고 범패노래는 아직 못합니다.” 했다. 그러자 임금은 이미 인연 있는 스님이 되었으니 향가를 쓰더라도 무방하다고 하였다. 월명사는 이 말을 듣고 도술가를 지어 불렀다.

(4) 〈모죽지랑가〉

去隱春皆林米	간 봄 그리매	지나간 봄을 그리워하매
毛冬居叱沙哭屋戶以憂音	모든것사 우리 시름	모든 것을 울며 시름합니다.
阿冬音乃叱好支賜烏隱	아름 나토샤은	아름다움을 나타내신
貌史年數就音墮支行齊	즈시 살쫘 디니저	모습이 주름살을 지니려 합니다.
目煙廻於戶七史伊衣	눈 돌칠 스이에	눈 깜짝할 사이에
逢烏支惡知作乎下是	맛보옵디 지소	만나뵈도록 기회를 지으리다.
郎也慕理尸心未行乎尸道尸	낭이여 그릴 므스믹 녀을 길	낭이시여! 그리워하는 마음에 가는 길
蓬次叱巷中宿尸夜音有叱下是	다뵈 곱허헤 잘 밤 이시리.	다복쑥 우겨진 구렁 속에 잘 밤인들 있으리이까.

이 노래의 지은이는 신라 진평왕 때의 득오이다. 이 노래는 《삼국유사》 권2 〈효소왕 죽지랑조〉에 실려 있다. 술종공이 삭주도독사가 되어서 임소에 가는 길에 그때는 삼한이 병란이 있는 때라, 기병 삼천으로 호송하였는데, 죽지랑에 다다르니 웬 한 거사가 그 산 길을 평평하게 다스리고 있었다. 술종공은 탄복하였는데, 거사도 공의 위풍을 보고 감심하여 서로 의기가 상통하는 바가 있었다. 공이 삭주에 도입하여 다스리기를 한 달 뒤에 꿈에 거사가 방에 들어온 것을 보았고, 공의 부인도 같은 꿈을 꾸었다. 놀랍고 괴이해서 이튿날 사람을 시켜 알아보니까 거사는 일전에 죽었다 한다. 더욱이 그 죽었다는 날짜와 꿈의 날짜가 꼭 맞는다. “거사가 우리 집안에 인제 태어나리라.” 공은 이렇게 말하고, 사람을 시켜서 거사의 주검을 영상 북쪽 봉우리에 후히 장사하고, 돌로서 미륵을 만들어 무덤 앞에 세워 주었다. 부인은 꿈 꾀 날부터 태기가 있어서 아이를 낳은 뒤에 죽지랑이라 이름 지었다. 자라서 벼슬에 나아가 김유신과 함께 부수가 되어 삼한을 통일하고 진덕·태종·문무·신문 네 임금의 재상이 되고, 나라를 안정하였다.

[56~61]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56

()은(는) 과거에 급제해 관직에 나아가서 국서를 써서 이름을 얻고 후세의 칭송을 받았고, 1080년(문종 34)에는 김근(金覲)과 함께 송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그 곳 문인들과 시를 주고받아 대단한 평가를 얻었으며, 이 두 사람의 시를 모아서 《소화집(小華集)》이란 책을 펴냈다.

→ 박인량은 《소화집》이라는 책을 편찬했으며, 《수이전》을 엮었다는 설이 있다.

57

원나라에 머물다가 귀국하여 국정을 총괄하며 문학의 혁신을 위한 활동을 한 이제현은 《익재난고(益齋亂藁)》란 문집에서 정통적 시문을 새롭게 한 성과를 보여 주었으며 ()을(를) 남겼다.

→ 《역옹패설》에서 ‘역옹’은 이제현의 호이며 ‘패설’은 자질구레한 기사를 모은 글이라는 뜻이다.

58

유행하던 속요들을 한시로 읊긴 것을 (㉠)(이)라고 하고, 칠언절구의 짧은 형식을 사용해서 소(小)자를 엮어서 (㉡)(이)라 한다.

59

중세후기는 앞서 말했듯 서정시와 교술시가 공존하는 시대였다. 이 시기 서정시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고 교술시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와(파) (㉤)인 것이다.

→ 시조는 서정시이고, 경기체가와 가사는 교술문학의 일종인 교술이다.

- 56 박인량
- 57 《역옹패설(櫟翁稗說)》
- 58 ㉠ 악부(樂府) ㉡ 소악부(小樂府)
- 59 ㉢ 시조 ㉣ 경기체가 ㉤ 가사